

‘어르신 건강관리’ 강진군보건소가 찾아갑니다

취약계층 2462가구에 간호사 방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호평
161개 경로당에 이동식 물리치료 버스…고혈압·당뇨 식단 교육도

강진군보건소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이 운영 중인 서비스는 특히 고령층 비율이 높고 교통이 불편한 곳이 많아, 찾아가는 밀착 의료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건강취약계층 2462가구를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기초 건강관리와 상담을 하는 서비스이다.
올해는 건강관리 위기에 처한 집중관리 대상자

를 선별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킨다’는 선제적 정책으로 각 마을 경로당으로 찾아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 및 보건교육도 진행한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마을을 찾아가는 이동식 물리치료 버스도 연중 운영중이다.
군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39개소 늘어난, 161개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물리치료, 간섭파·적외선 치료, 도수치료 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된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예방과 관리에 대한 기본 교육과 고혈압·당뇨 식단 실습, 근력운동, 심방세동 선별검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장이나 터미널 등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활용해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한 삶이 강진군 행복의 척도다. 군민이 부르기 전에 건강지킴이들이 미리 달려가겠다”며 “발로 뛰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해,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1-430-5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강진군보건소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진군보건소 제공>

나주 ‘14cm 눈’에 공무원 1000여명 제설 구슬땀



윤병태 나주시장(맨 오른쪽)과 시 공무원, 공군부대 군인, 의용소방대원들이 25일 오전 8시부터 성북동 사거리 일원 인도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송월·영강·금남 등 7개동서 출근 늦추고 눈 치우기 작업

나주지역 대설경보가 25일 자정을 기해 해제된 가운데 나주시청 공무원 1000여명이 제설작업에 동참했다.
나주시와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2시부터 25일 자정 대설경보가 해제되기까지 이틀 간 14cm의 눈이 내렸다. 24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제설작업으로 차량이 오가는 주요 도로는 비교적 통행이 원활한 상황이지만 이면도로, 인도 등은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나주시는 25일 오전 8시부터 본청 필수인력, 임산부, 영·유아 보육 직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

원 1000여명을 전격 투입했다. 제설작업은 송월, 영강, 금남, 성북, 영산, 이창, 빗가람 등 총 7개 동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오전 9시까지 1시간 가량 이뤄졌다.
읍·면 지역에서도 각 사회단체, 공무원들이 합심해 자체 제설작업에 동참했다.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 속에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보행 안전,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버스 승강장, 상가건물 앞, 교량, 경사로, 인도 곳곳에 쌓인 눈을 치우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윤병태 나주시장도 행정복지직 직원, 의용소방대원 20명, 공군부대 장병 10명과 함께 성북동 사

거리 일원 인도 제설 작업에 참여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윤 시장은 “설 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첫 날 갑작스러운 비상근무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시민의 삶을 살피는 공직자 본분을 잊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제설에 동참해준 동료 공직자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나주시는 대설 대비 적극적인 사전 조치와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통해 사후 피해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각 읍·면·동을 통해 피해 상황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대설로 인한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 상하수도 요금 내년부터 인상

시, 물가인상 등 고려 1년 늦춰…4년간 단계적으로 2~3배

나주시가 오는 3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1년 가까이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인상 시기만 늦춰졌을 뿐 요금이 4년에 걸쳐 2~3배 오르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
나주시는 연이은 물가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해 말 연평균 누적 적자가 14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화한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현재 나주시의 생산원가 대비 수익을 나타내는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 39.4%와 7.1%다.
전남지역 지자체 평균(상수도 80.8%, 하수도 32.3%)에도 크게 못 미친다.
나주시는 애초 이 현실화율을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69.5%와 29%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다 고금리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할 경우 시민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서둘러 인상 시기를 조정할 개정안을 마련해 시민 의견을 받은 뒤 2월 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 요금은 ㎥당(월 사용량 21~30㎥ 기준) 680원에서 2027년에는 1010원까지 내야한다.
인상률로 보면 2024년 13.3%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1.3%, 2026년 9.1%, 2027년에는 7.2%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월 사용량 21~30㎥ 기준)이 ㎥당 203원에서 2027년에는 640원까지 된다.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48.9% 올린 뒤 2025년에는 38.9%, 2026년 28.9%, 2027년 18.9% 등 적게는 10%대에서 50% 가까이 인상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민 절반 “지역민으로 자부심”

전남도·군 사회조사 결과…33.6% “인구 증가 위해 일자리 필요”

담양군이 25일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 정책적 요구사항 등을 파악한 2022년 전라남도·담양군 사회조사 결과 및 사회지표를 공표했다.
공표된 사회지표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전라남도도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관내 표본 가구 828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과 경제 등 총 46개 항목을 설문 조사해 응답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민으로서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군민이 52%로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0.9%로 나타났으며, 의원을 이용하는 군민이 61.9%로 가장 많았고, 병원(19.9%), 한방 병·의원(7.7%)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군민 2명 중 1명은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점 이상으로 응답한 군민이 75.0%를 기록하는 등 2020년에 비해 11.8%나 증가했다.
또 담양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귀농·귀촌 지원사업 확대(19.5%), 출산장려 정책 확대(10.8%)이 그 뒤를 이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삶의 질적 수준, 사회 변화를 파악, 주요 군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담양군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는 담양군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후배 미래 응원” 장흥 형제 1천만원 기부



축산·수산업 종사하는 청년 일꾼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전달

장흥군 축산을 흥장민·정인 형제가 최근 장학금 1000만 원을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했다.
〈사진〉
흥장민·정인 형제는 장흥군에서 축산업과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일꾼이다.
흥장민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지역사회

에 대한 애정이 크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관산을 비롯한 장흥의 후배들이 학교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장흥에서 성장한 형제가 후배들을 위해 아름다운 결정을 해주 감사하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고향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전남 청년 문화비 지원

강진군, 年 20만원…2월까지 신청

강진군이 청년의 문화생활 향상 및 자기계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관내 청년들에게 연간 20만 원의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중인 19세~28세(1995년~2004년 출생자) 청년이다.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수강 대상자,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농협 누리집 내 카드신청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는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문화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 문화활동 및 자기 계발을 위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남도 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결제나 타 사·도 사용은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 (061-430-3077)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치매 조기 검진” 함평군-협력의료기관 협약



함평군 보건소가 치매 의심 대상자들의 신속한 진단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의료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협력의료기관 5개소와 최근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력의료기관은 무안종합병원, 함평성심병원, 좋은생각정신건강의학과의원, 영광기독병원, 목포시의료원 등 5개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

세 이상 함평군민은 누구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로 판정되는 경우 협약병원의 진단·감별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병희 함평군보건소장은 “치매 조기발굴을 위해서는 신속한 진단·감별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